

## 관람안내

- 관람시간 10:00-18:00(17:00 까지 입장)
-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당일
- 관람료 무료
- 전시해설 국립기상박물관에서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평일 4회(10:00, 11:00, 14:00, 16:00)  
 주말 5회(10:00, 11:00, 14:00, 16:00, 17:00)  
 전문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70-7850-8493

## 오시는 길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강북삼성병원 방향
- 주차**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월동 번지 서울기상관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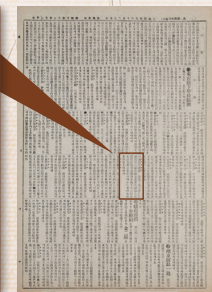
# 원남동

Wonnam-Dong



한국농상공부 韓國農商工部 「측후소 관제(測候所管制)」가 발표(1906)된 이후 인천측후소 경성지소는 동서 마두산 대한의원 東署 馬頭山 大韓醫院 내에 1907년 설치되었다.

測候所開務 農商工部所管仁川 測候所京城支店을東署馬頭山大韓醫院構内に設置하고技手入江信介를開始한다 너라



1907. 10. 2 황성신문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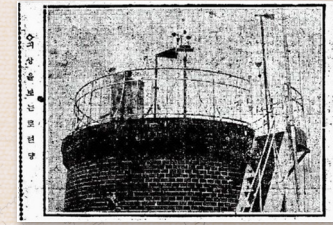
이곳은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연건동 28번지)으로, 경성측후소는 당시 대한의원 건물의 남쪽 부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낙원동

Nagwon-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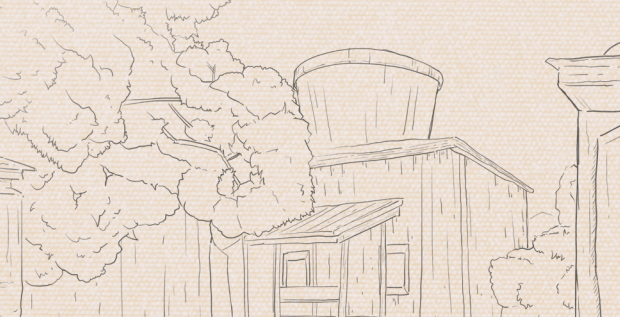
1913년 조선총독부관측소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부지 천여평에 풍력탑과 본관, 노장으로 구성된 중부 교동 대빈궁터(中校洞元大賓宮跡)로 이전하였다. 청우계(기압계), 지진계, 무선기 등의 관측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나, 일제는 '지형이 낮고 조용하지 못하고 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송월동 1번지로 다시 이전을 추진하였다. 현재 이곳은 원불교 종로교당과 종로 세무서(삼일대로 30길)가 위치해있다. 1930년대 경성은 3층을 넘는 고층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여 풍향풍속 측량에 영향을 받았고, 지반을 깊게 설치해야 하는 지진계설 설치 구조 등의 과정에서 서울기상관측의 역할을 송월동으로 내주게 된 것이다.



1926. 9. 10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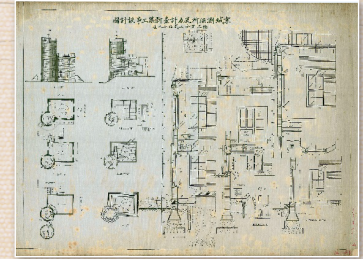
測候所移轉  
【京城中區(東區)의 京城中區(東區)의 測候所(測候所)가 京城中區(東區)의 京城中區(東區)의 測候所(測候所)로 移轉(移轉)한 事(事)에 關(關)한 報(報)지(지)다. 測候所(測候所)는 京城中區(東區)의 京城中區(東區)의 測候所(測候所)로 移轉(移轉)한 事(事)에 關(關)한 報(報)지(지)다. 測候所(測候所)는 京城中區(東區)의 京城中區(東區)의 測候所(測候所)로 移轉(移轉)한 事(事)에 關(關)한 報(報)지(지)다.

1932. 2. 22 동아일보



어느 신문은 보던지 신문에는 매개 환기(매개 환기)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 신문의 환기(환기)는 다 이 낙원동에 있는 측후소에서 발표하는 것이랍니다. 매일 환기(환기)를 하는 것은 풍우를 맡은 커신이 이년 다음에야 어찌할것습니까만은 이 측후소에서는 매일 환기를 매개 집착한답니다.

-1924. 7. 4 동아일보



경성 측후소 풍력계대 신축공사 설계도 축척 1:100, 1:20, 국가기록원

# 송월동

Songwol-Dong



바람이 강해져서 조용한 것 등 기후에 관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는데, 이번에 새로 사서 송월동 1번지에 신형사를 건축하고 이전하게 되었다. 공사비 3만원 해발 86미터 되는 곳에 건평 96평의 청사가 완공되어 오늘 27일에는 일반 관람자에게 공개 관람케 한다고 한다.

1932년 송월동으로 이전한 경성측후소는 1933년부터 본격적인 기상 관측 업무를 진행했다. '86미터 되는 곳에 위치한 건평 96평의 청사'에서 '바람이 강하거나 조용한 것 등의 기후에 관한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역할로 경성측후소 25년의 역사를 새로 시작한 것이다.



1932. 11. 25 매일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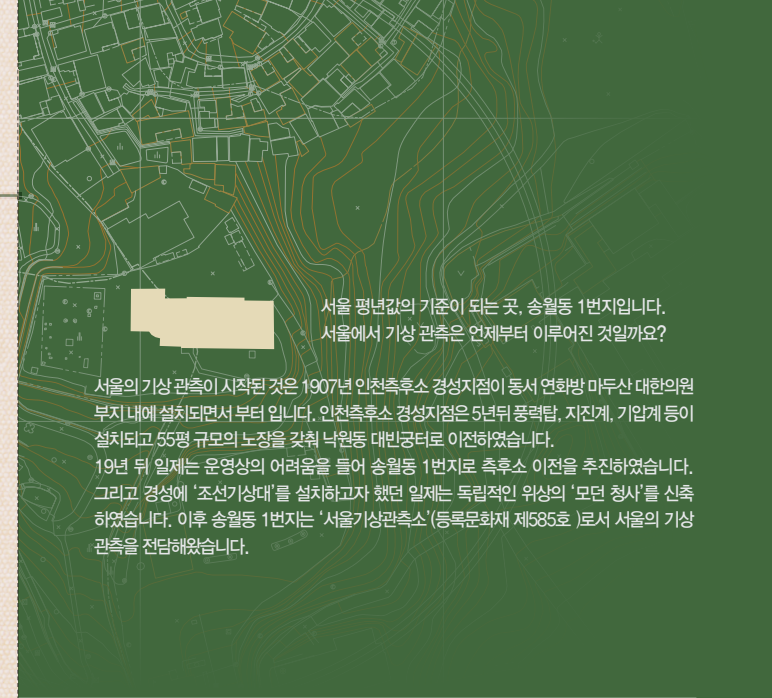


제1회 세계기상일 국립중앙관상대 본관, 1961.3.23



국립중앙관상대 본관, 1990년대

해방 이후 '경성측후소'는 미군정을 거치면서 '국립중앙관상대'로 개칭되었고, 1948년부터 국립중앙관상대 본대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은 보다 강화되어 1961년 국립중앙관상대 본관이 신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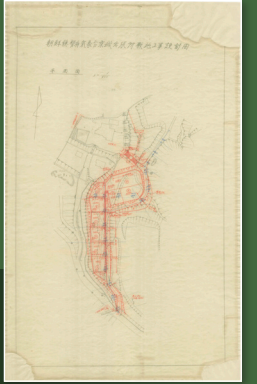


서울 평년값의 기준이 되는 곳, 송월동 1번지입니다. 서울에서 기상 관측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일까요?

서울의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것은 1907년 인천측후소 경성지점이 동서 연화방 마두산 대한의원 부지 내에 설치되면서 부터 입니다. 인천측후소 경성지점은 5년뒤 풍력탑, 지진계, 기압계 등이 설치되고 55평 규모의 노장을 갖춰 낙원동 대빈궁터로 이전하였습니다.

19년 뒤 일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송월동 1번지로 측후소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성에 '조선기상대'를 설치하고자 했던 일제는 독립적인 위상의 '모던 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 이후 송월동 1번지는 '서울기상관측소' (등록문화재 제585호)로서 서울의 기상 관측을 전담하였습니다.

송월동 1번지측후소는 당시 경성중학교 뒷산이었으며, 청사와 노장, 그리고 두 채의 관사로 구성되었다. 청사는 서울성곽이 지나는 능선 위에 지어졌고, 관사는 청사의 남측 아래 있었다. 청사 내에는 관측계설, 무선실, 자연계설 숙직실 등이 있었다. 이후 우편국실도 설치되었는데, 이는 기상 관측과 예보 체계가 고루 갖추어지게 된 당시 업무환경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조선총독부 기상대 경성출장소 부지공사 설계도 평면도 (축척 1:600), 국가기록원



신대원동 기상청 신청사, 1998.10.13

국립중앙관상대는 1990년 기상청으로 승격되었고, 기상청 본청은 1998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리매공원 내 공군대학 부지로 신축 이전하였다. 이후 송월동 1번지 '서울기상관측소'로 명명되어 서울 기상의 대푯값을 내는 표준기상관측소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